

## 참고 2.

###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 및 연체 현황 점검<sup>1)</sup>

지난해 이후 자영업자대출<sup>2)</sup>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들어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 업황이 부진한 모습<sup>3)</sup>을 보이고 대출금리도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자영업자대출 동향을 차주특성별로 살펴보고 연체율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하였다.

#### 자영업자대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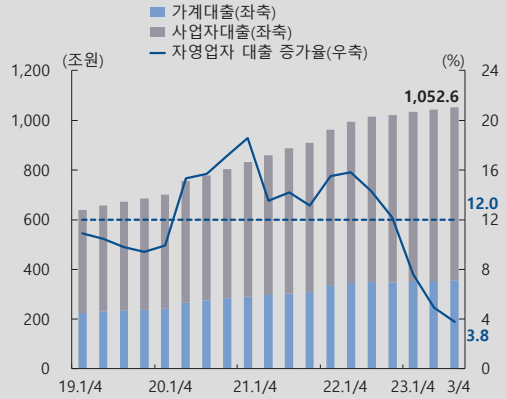
##### 자영업자대출 증가세 큰 폭 둔화

2023년 3/4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052.6조원으로 지난 분기말(1,043.2조원) 대비 9.4조원 증가하였다. 다만 2023년 들어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장기평균(2013~23년중 12.0%)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에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8%를 기록하였다.

자영업자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7조원 및 355.9조원으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2.0%)이 개인사업자대출(4.7%)에 비해 증가세 둔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sup>4)</sup> 금융업권별<sup>5)</sup>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에서 자영업자대출 증가세가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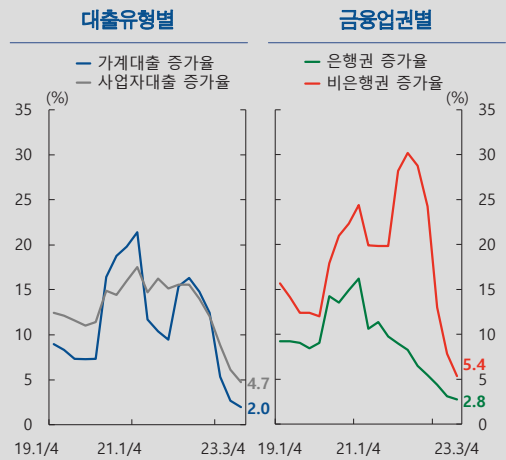
둔화되었다. 특히 비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22년말 24.3%에서 2023년 3/4분기 5.4%로 크게 하락하였다.

자영업자대출 동향<sup>1)2)</sup>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점선은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의 장기평균 (13년 1/4분기~23년 3/4분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대출유형 및 금융업권별 자영업자대출 증가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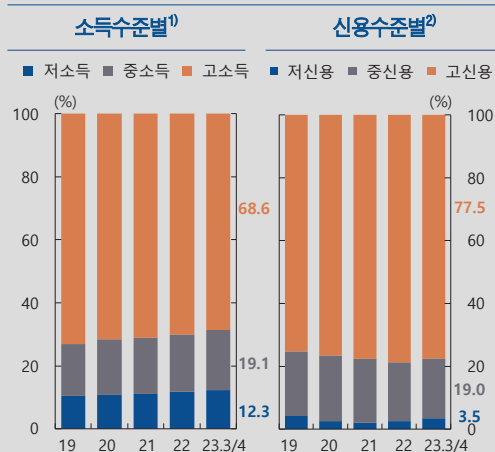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1) 본고는 편도훈·신정후(안정분석팀)가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이정연(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3)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가율(통계청, 전년동기대비, 불변가격 기준) : 2023년 1/4분기 6.4% → 2/4분기 2.3% → 3/4분기 1.9%  
4) 자영업자대출 차주(314.5만명) 중 70.5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168.4조원)만 보유하고 있는 반면, 244.0만명은 개인사업자대출(528.3조원)과 가계대출(355.9조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5)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은행권 대출은 60.1%(632.8조원), 비은행권 대출은 39.9%(419.8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 소폭 증가

차주의 소득 및 신용도별로는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하고 신용리스크가 낮은 고소득(146.2만명)·고신용(219.4만명) 차주가 각각 자영업자대출의 68.6%(722.2조원), 77.5%(815.7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3/4분기말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의 대출 비중은 각각 12.3%, 3.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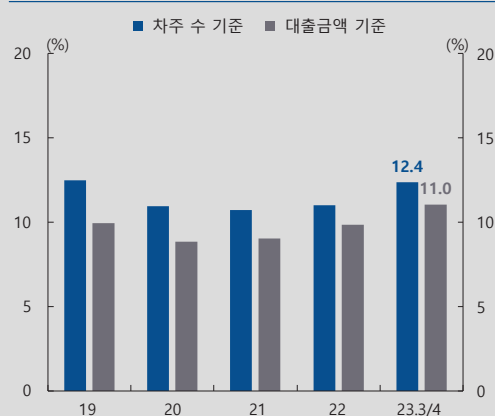
### 차주특성별 자영업자대출 비중



주: 1) 가계부채DB 상 전체 차주 중 소득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차주를 각각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으로 분류  
 2)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중신용(665-839점), 고신용(840점 이상)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한편, 2023년 3/4분기말 자영업자 취약차주⁶)는 38.9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116.2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은 차주 수 및 대출잔액 기준으로 각각 12.4% 및 11.0%로, 전년말(11.0%, 9.8%)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영업자 취약차주¹) 비중



주: 1)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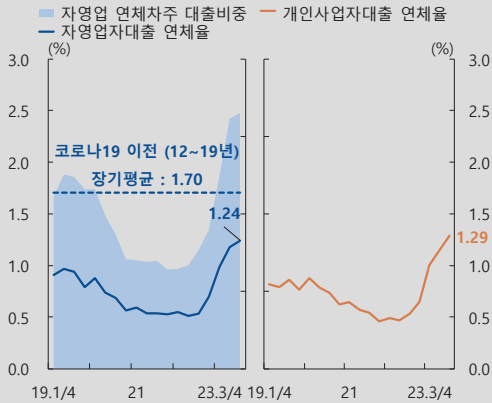
###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1.24%로, 2022년말(0.69%) 대비 0.55%포인트 상승하였다. 2022년 2/4분기말(0.51%) 이후 업황 부진 및 이자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연체율 수준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70%, 2012년 1/4분기~2019년 4/4분기)을 하회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고한 실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⁷)(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은 전 금융권 기준 1.29%를 기록하였다.

전체 자영업자대출 중 연체차주들이 보유한 대출(현재 연체중인 대출과 정상 상환중인 대출의 합)의 비중⁸)(이하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2023년 3/4분기말 현재 2.47%로, 전년말(1.35%) 대비 1.13%포인트 상승하였다.

6) 자영업자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자영업자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7) 자영업자대출 연체율과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표본 데이터인 가계부채DB를 통해 추정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산정한 실제 연체율 지표이나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8)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자영업자 중 연체차주가 보유한 총 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일부 대출을 연체중인 자영업자 차주가 향후 보유 대출을 모두 연체할 경우의 최대 연체율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 자영업자대출 연체<sup>1)</sup> 현황<sup>2,3)</sup>



- 주: 1)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2)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및 자영업 연체차주 대출비중은 기계부채DB상 자영업 차주 대출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상 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기준으로 산정  
 3) 점선은 자영업자대출 연체율(기계부채DB 기준)의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12년 1/4분기~19년 4/4분기)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기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평가 및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급증세를 보였던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가 금년 들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영업자대출의 상당 부

분을 고소득·고신용 우량 차주들<sup>9)</sup>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다만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sup>11)</sup>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부담경감<sup>12)</sup>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sup>13)</sup>, 새 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상환 및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 장기 분할상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영업자대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9) 2023년 3/4분기말 기준 고신용 및 고소득 차주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09%, 0.99%로 전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1.24%)을 하회하고 있다.
- 10)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2023년 6월말 기준 동 제도 이용잔액은 약 76.2조원(만기연장 71조원, 원금상환유예 4.1조원, 이자상환유예 1.1조원)이었다. 금융위원회의 연착륙 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이용가능하며, 상환유예는 거치기간(1년) 및 최대 60개월(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되면서, 동 조치 종료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8월 29일).
- 11) 자영업자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 비중과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비자영업자대출에 비해 높아 상업용 부동산경기 부진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2> 「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요인 및 연체가능성 점검」을 참고하기 바란다.
- 12)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약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지원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의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연합회 보도자료, 2023년 12월 21일).
- 13)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7% 이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5%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고 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8월 28일).